

법원, 이만희 총회장 보석허가 “건강악화”

“주요 증인 심리 진행, 증거인멸 우려 크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주거지 제한·보증금 1억 납입조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며 보석보증금 1억 원의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신청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

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9월 18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 등은 대구교회 교인 132명 명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예배 참석자 명단, 중국교인의 국내 행적, 전체 교인명단, 전체 시설현황 등 각종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방역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남편 성기 절단한 60대...재판 연기끝에 징역 3년

첫 재판서 “이혼 후도 맞고 살아” 호소

이혼한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 흉기로 성기 등 신체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69)씨의 특수중상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최 판사는 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윤씨는 범정에 들어서자마자 “죽을 죄를 졌다”고 흐느끼며 눈물을 쏟아냈다.

이에 윤씨가 양정을 되찾을 때까지 잠시 기다린 최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등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혼 이후 사실상 부부관계를 이어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영구 절단되는 상태에 이른 만큼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한 범행 의도와 수면제를 준비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

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감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과 가족 관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9시께 전 남편 A씨에게 수면제 알약 5정을 준 뒤, 알약을 삼킨 A씨가 그대로 잠이 들자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은 A씨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후 정신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는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그동안 아내를 홀대해온 죄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시간 반성하며 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열린 첫 재판에서 윤씨는 평소 A씨에게 맞고 살았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당시 윤씨는 “(전 남편이) 말도 없이 주먹이 먼저 날아오는 등 폭행을 일삼아서 2년 전에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 맞고 살았다”며 “아침에 다 컸지만 결혼할 때까지는 잡지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혼 후에도 계속 맞으면서 살았다”고 말했다.

“수면제는 어떻게 구한 것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윤씨는 “이혼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자주 두통에 시달렸다”며 “머리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는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했다”고 답했다.

당초 윤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달로 예정돼 있었지만, 최 판사가 형을 정하는 것이 고민된다며 선고를 한 차례 연기했다.

지난달 22일 최 판사는 “(피고인의) 기록을 검토했는데 형을 정하는 것이 고민된다”며 “자료를 조금 더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했다.

기동취재본부

서선욱기자

“언론의 과도한 조두순 취재 때문에 못살겠다”

오는 12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거주 예정지 주민들이 “조두순 출소 관련 과도한 취재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주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12일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 명의로 작성돼 배포된 ‘언론인 및 언론사에 전하는 주민 호소문’에는 “조두순이 출소후 안전에 거주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 거주 예정지 인근에서 많은 언론사 기자 등의 과도한 취재가 이뤄져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락없이 단지내를 출입하는 행위는 범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입주민 동의없이 아파트 단지내 출입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입주민 동의를 받고 출입을 하더라도 동의 범위를 넘는 취재를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락없는 입주민 촬영이나 인터뷰를 하지 말아줄 것과 개인 신상이 노출되거나 아파트 및 해당 지역을 알 수 있는 기사 작성 및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해당지역이 알려지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파트와 가까운 곳에서 오랫동안 상주하며 취재하지 말아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서선욱기자

술만 마시면 어머니 위협·폭행한 40대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술에 취해 어머니를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존속폭행)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께 광주 북구 한 자택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팔을 한차례 잡고 비튼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단둘이 함께 사는 어머니에게 술만 마시면 갖은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알코올 의존증 관련 치료 전력이 있는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알코올 의존증 전문 치료 기관에 행정입원 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여수경찰서, 연말까지 음주운전 무관용 특별단속

전남 여수경찰서는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에 따른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교통경찰과 가용 경력을 투입해 곳곳에서 단속할 예정이다. 20~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변경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비롯해 S자형 단속과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 활용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한다.

유형가,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나서지만, 각 지역별로 지역 경찰에서 수시로 음주단속을 펼친다.

여수경찰서가 최근 두 달간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300여 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는 21건이었다.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음주운전 무관용 상시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여수경찰서 문병훈 서장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음주운전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왜 이렇게 느려?” 버스터만취 행패 7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술에 취해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A(7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광주 서구 양동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55)씨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석 방호벽 위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운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 더 빨리 가자’며 행패를 피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B씨가 직접적인 폭행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행 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닌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은 곧장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와 승객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광주서 전동킥보드·오토바이 충돌...2명 경상

광주 도심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가 충돌, 운전자 2명이 다쳤다.

12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양암동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운전한 전동킥보드가 20대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두 운전자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미희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